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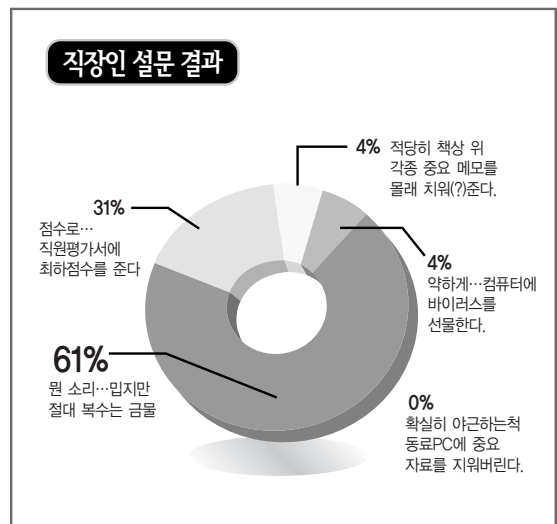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알미운 동료에게 이런 복수를...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한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상사나 동료, 후배도 있지만 역시 내가 정말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투로 말을 하거나 사소한 부탁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가 하면, 일부로 골탕을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이지 “복수하리라.” 이 말을 가슴에 품기도 하게 된다. 한 기업에서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알미운 동료에게 어떤 복수가 적당한가에 대한 장난기 있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직장생활 하면서 곁끄러운 상대,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는 상대가 어느 조직에서나 몇 명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회심의 일격을 날리는 장면을 상상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알미운 동료에게 ‘한 번 복수하리라’ 다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삼성그룹이 젊은 직장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영삼성닷컴’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미운 동료에게 이런 복수를?’이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많은 직장인이 ‘복수? 무슨 소리... 밋지만 절대 복수는 금물’이란 응답을 선택하며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복수는 조금 먼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39%는 ‘알미운 동료에게 반드시 복수한다’고 말했다. 살벌한 응징보다는 가벼운 방법이 주를 이뤘다. 31%는 ‘직원 평가서에 최하 점수를 준다’고 답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선물한다’ ‘책상 위 각종 메모를 몰래 치운다’ 등이 각각 4%였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직장인의 엉뚱하고 기발한 복수법이 올라와 웃음을 자아냈다. 미국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를 통해 알려진 ‘인테리어 복수 시리즈’는 기상천외한 응징 방법을 담고 있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회용



메모지를 책상과 컴퓨터에 빼곡히 붙여 놓거나 신문지로 사무 집기를 도배해 동료의 업무를 방해한다. 컴퓨터 자판에 씨앗을 뿌려 삭이 자라나게 해 동료를 당황케 만드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동료가 술에 취했을 때 택시에 태운 뒤 기사에게 다른 동네 이름을 말해준다’, ‘평소 싫어하는 스타일의 이성과 소개팅하도록 추천한다’, ‘동료 명의로 성인 사이트에 가입해 엄청난 스팸 메일을 선물한다’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